

경원선 철도 복원 내달 말 착공

백마고지 ~ 월정리

월정리 ~ 군사분계선
남북간 합의 후 복원

경원선 철도 남측구간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11.7km) 복원공사가 7월 말부터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보류됐던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복원 공사가 확정돼 1단계로 백마고지역~월정리역(9.3km) 구간 공사를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월정리역~군사분계선(2.4km) 구간은 2단계로 남북간의 합의가 이뤄진 후 복원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경원선 복원 계획'을 마련했고,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는 지난 25일 1·2단계 총 건설사업비 1508억원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1단계 백마고지역~월정리



역(9.3km) 공사에는 1200억원이 투입되며, 설계·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시행돼 2017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남·북한 병력이 대치중인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지뢰 제거, 설계·시공 병행 추진 등 복원사업 추진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통선내

경원선은 금강산선 시발점으로 복원 의미가 크다"며 "철원 DMZ 안보관광 활성화 등 경기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원산을 잇는 경원선은 1914년 개통된 이래 용산~원산간 223.7km를 운행하며, 물자수송 역할을 담당했으나 6·25 전쟁으로 남북 정경구간이 파괴됐다.

정부는 2012년 11월 경원선 신탄리~백마고지역(5.6km) 구간을 먼저 복원했다. 서울/전민수

국장급 승진자 박홍용·조인묵 과장 내정

김미영 부지사 내일 이임

강원도가 국장급 승진대상자로 박홍용 경제정책과장과 조인묵 복지정책과장을 내정했다.

강원도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심의를 벌인 결과 다면평가를 통해 국장급 승진자로 박홍용 경제정책과장을 선정했다. 도는 당초 국장급 승진 추천 대상으로 박 과장을 포함해 3명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잠시 후 착오가 있었다며 국장급 승진 대상자를 1명으로 정정했다. 도는 승진대상자가 2명일 경우 1명은 다면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발탁에 의해 선정



김미영 부지사 박홍용 과장 조인묵 과장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최문순 지사는 28일 오전 국장급 승진자로 보건복지여성국 주무과장인 조인묵 복지정책과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과장은 양귀출신으로 강원고와 강원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장과 도투자유치과장, 정선부군수를 지냈다.

한편 김미영 경제부지사는 30일 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김미영 경제부지사의 이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1974년 옛 원성군에서 9급 행정직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도 여성가족과장·기업지원과장·여성가족연구원 최초로 고성군 부군수를 역임한 후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재임하다 지난 7월 경제부지사로 발탁됐다. 백오인

레고 진입교량 내달 1일 첫 삽

길이 1058.5m·폭 25m

춘천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사업이 첫삽을 뜬다.

강원도는 춘천 근화동에서 레고랜드가 건설되는 중도를 연결하는 진입교량 기공식을 오는 1일 오후 2시 근화동 진입교량건설 예정지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건설되는 레고랜드 진입교량은 오는 2017년 8월까지 총 8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길이 1058.5m, 폭 25m 규모로 건설된다.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맡아서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의계약을 통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편, 레고랜드 진입교량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등에 따른 2차례의 유찰 끝에 대림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백오인 105in@kado.net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로 건설경기 활성화”

오인철 건설협회 도회장 취임 인터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제21대 회장에 오인철 춘천 태성중합건설 대표가 취임했다. 오 회장은 3년간 건설협회 도회장직을 수행한다. 당선 소감을 들어봤다.

-건설협회 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협회 도회장직에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건설업계를 활성화

발주기관에 지원 요청
공사 수익성 개선 노력
원가 산정기준 정상화

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

-도내 건설업계가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방향은.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건설산



기부양 정책이 절실한 시기다. 도내에서 건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5%를 상회하는 등 경제기여도가 상당하고 고용유발계수 또한 17.4로 제조업 보다도 높다.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SOC 투자 확대 등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정치권의 지원이 시급하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은.

“공공공사 의존율이 높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공사물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내 발주기관들을 직접 찾아가다니며 업계의 어려움을 전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등 업계 참여 방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공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공사내역 현실화를 위해 힘쓰겠다. 표준시장단가제 합리적 기준 마련 등 공사원가 산정기준 정상화를 도모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경제순환 역할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회의 근본 목적인 회원 권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통과 배려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회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지금 지역건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부담감도 크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곁과를 창출하는 건설의 힘을 바탕으로 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극복해 내겠다. 이를 통해 다시금 강원도 경제 발전을 이끌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회원들의 많은 응원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항상 겸손한 마음이짐으로 많은 바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

박성준 kwjin@kado.net

公共계약 효율화 '새판' 짬다

전문가 구성 '네트워크'가동
중심제·입찰價 모델 연구 등
테마별 문제·개선방향 진단
이르면 연말께 보고서 발간

공공부문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다.

국가계약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재정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주축으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부문 계약 효율화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다.

28일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부문 계약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계약 네트워크'가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계약 네트워크'는 공공부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이 학계와 연구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만든 조직이다.

올 하반기 중 △외국의 입찰자 스크리닝 제도실태 및 시사점 △기술용역 종합심사제 도입방안 △건설공사 입찰가격 평가모델의 연구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내실화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계약법규 체제의 정비방향 △건설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시사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르면 연말께 결과물을 모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각 주제별로 국책·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진들과 대학 교수진들이 나눠 진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제도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테마를 정해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정부계약 네트워크"를 통해 나온 결과들은 나중에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고하거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계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직접 나서면서 '정부계약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시장이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 공공

부문 계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넘쳐나는 공사 물량에 묻혀 공공부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부의 목인 아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에 따른 물량 감소와 재정 절감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가계약제도는 적지 않은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종합심사낙찰제와 표준시장단가의 도입,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확대·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계약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계약 네트워크'가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 계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정부계약 네트워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계약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정부계약학회에서 나아가 연구원 내에 정부계약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기술형입찰 공공시설공사

턴키서 기술제안방식으로 중심 이동

상반기 22건 중 13건 차지

기술형입찰시장의 무게 중심이 올 상반기 기술 기점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술제안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토목부문에 연착륙한 기술제안입찰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턴키는 당분간 철도와 항만공사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겠지만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28일 <건설경제>가 올 상반기 기술형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입찰공고(신규)된 22건(일부 지자체 및 민간발주 제외)의 공사 중 약 60%에 달하는 13건이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 발주돼 상반기 중 낙찰자를 선정한 물량을 포함해도 전체 23건 중 기술제안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며 집행실적에서 턴키를 추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규모(낙찰금액)를 기준으로 봐도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설비공사가 기술제안으로 집행을 완료하면서 턴키 집행규모를 크게 압도했다.

지난 2008년 첫 도입된 기술제안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 주로 건축공사에 적용되며 빠르게 그 영역을 넓혀왔다. 이후 2012년에는 한 해 약 20건의 집행실적을 거두며 공공시장에 안착했고, 2013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와 수자원 등 토목분야로도 그 세를 확장해 나갔다.

여기에 정부가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제안내용 간소화 및 제안보상비 적용 등의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비로소 턴키와 더불어 기술형입찰시장을 양분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런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각종 입찰담합과 비리사건 등 턴키 관련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기술제안은 더욱 중용받게 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예정 물량 등을 감안해도 올 전체 기술형입찰시장은 집행 건수 면에서 6대4 비중으로 기술제안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원전은 물론 도로와 수자원 등 기술제안입찰이 토목부문에까지 연착륙했기 때문으로, 턴키는 당분간 일부 긴급공사와 철도·항만분야를 위주로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철도와 항만공사 역시 기술제안 입찰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기술제안 물량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턴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63건·2471억 집행

지역공동도급 대상 58건
LH는 5건·3906억원 규모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6.29~7.3) 한전KPS 수요의 R&D 콤플렉스 건립공사 등 모두 63건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정가격 기준 총 집행규모는 2471억원으로, 기술형입찰 및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각 2건씩이 포함되면서 6주 만에 다시금 2000억원대로 올라섰다.

기술형입찰공사로는 오는 30일과 내달 3일 한전KPS의 R&D 콤플렉스 신축공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요의 부산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입찰서 접수가 각각 예정돼 있다.

2건 모두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추정가격은 각각 445억원과 609억원 규모다.

R&D 콤플렉스 신축공사는 금호산업과 남해종합건설이 대표사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해 입찰제안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 부산 신청사 건립공사는 한화건설 팀과 계통건설 컨소시엄이 맞대결을 예고해 둔 상태다.

최저가 대상으로는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와 성주대학교(구) 개축공사가 각각 30일과 7월1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추정가격은 각각 380억원과 325억원 규모다.

이 밖에도 내달 2일과 3일 개찰을 앞둔

충남 아산시 수요의 아산제2테크노 진압도로 개설공사(134억원)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141억원) 등은 중대형 물량으로 건설업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를 포함, 이번주에는 전체 집행건수의 약 92%에 해당하는 58건의 공사가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전체의 약 37%인 906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부산시가 610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북도(495억원), 전남도(485억원), 울산시(385억원) 등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 본사는 이번주 390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 5건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주(4765억원, 4건)에 비해 입찰건수는 1건 늘었지만 금액은 859억원 감소한 것으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입찰 감소로 입찰금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번주 입찰은 오는 29일 강릉유천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472억원)와 강릉유천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1278억원), 강릉유천 B-1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422억원)와 강릉유천 B-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1201억원), 구리갈매 B3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534억원)를 모두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한다. **봉승권·채희진기자chc@**

건협 시도회 이·취임식 잇따라

배인호 경북도회장 “발주기관에 SOC 투자확대 요청”

배인호 성호건설 대표(사진 왼쪽)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

건협 경북도회는 지난 26일 대구 인터블고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배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수주물량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시기에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의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과 실적공사비의 표준품셈 단가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실제공중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등 불합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윤현우 충북도회장 “불합리규제 등 제도개선 앞장”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청주 썬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제21·22대 김경배 회장 이임식 및 제23대 윤현우 회장(삼양건설 대표·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중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노영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자체 및 건설관련 기관장과 회원사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윤현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물량난과 수익성악



화, 업역감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회원사의 뜻을 받들어 일감 확보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영 전북도회장 “공동체 의식 갖고 최선 다할 것”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정대영·사진)는 지난 26일 전주 건설회관에서 ‘제4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제5대 지역 대표회원 선출을 회장단

에게 위임하는 등 4개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대영 회장은 “한 배를 탄 공동체 의식을 갖고 녹록지 않은 주변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협 전북도회장 이·취임식은 다음달 9일 오전 11시 전주 호텔리원에서 열린다.

박해상 충남도회·세종시회장... 감사 임원 등 선임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는 지난 26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제24대 박해상 회장(우석건설 대표·사진)과 더불어 도(시)회를 이끌어 갈 감사 및 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새로 감사를 맡게 된 박승찬(삼남건설)의 모두 46명으로, 황남순 대국건설산업 대표 등 9명이 대원으로 선임됐다. 운영위원으로는 이정재 대륙종합건설 대표와 정원용 대웅건설 대표 등 25명이 선임됐으며, 윤종기 가왕종합건설 대표와 박문규 대원종합건설 대표 등 12명은 윤리위원으로 선정됐다.

오인철 강원도회장 “지역업체 물량확보 위해 최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26일 강원 춘천 베이스 호텔에서 제20대 정동기 회장 이임식 및 제21대 오인철 회장(태성종합건설 대표·사진)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오인철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현실단가 반영 추진,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지역업체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했다. 강원도회는 이날 제21대 집행부 구성도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황영철·김진태 국회의원, 협회 임직원 및 대표회원 등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했다.

오인철 강원도회장 “지역업체 물량확보 위해 최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26일 강원 춘천 베이스 호텔에서 제20대 정동기 회장 이임식 및 제21대 오인철 회장(태성종합건설 대표·사진)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오인철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현실단가 반영 추진,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지역업체 물량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했다. 강원도회는 이날 제21대 집행부 구성도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정삼 강원도 행정부지사, 황영철·김진태 국회의원, 협회 임직원 및 대표회원 등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했다.